

# 마당에 모인 모든 존재들이 펼쳐낸 다채로운 '울림'의 향연

'관소리, 모두의 울림'...제15회 광주비엔날레 리뷰

## 뒤엎힌 도시로부터 태초의 소리로...비인간 주체 목소리 주목 '소리 숲' 주제로 한 양림동 외부전시장, 골목 곳곳이 예술의 장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통로를 걷다 보면 도시의 요란한 소음이 느껴진다. 지구의 불협화음, '부딪침 소리(feedback effect)'를 다룬 섹션답게 1전시실의 첫 인상은 뻑뻑하고 복잡했다. 벽면에는 각종 폐기물이 잘라주된 회화가, 한쪽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서 거대한 철물 작품이 자리 잡고 있다. 미로처럼 촘촘히 들어찬 전시장 가벽 역시 밀도 높은 지구 생태계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게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의 이야기다.

가수 제임스 브라운의 목소리를 입힌 노래가 흘러나온다. 관소리 리듬에 맞춰 10여개의 풍선형 실리콘 조형물이 일제히 통통 튀어 오르는 모습을 연출한 해리스 피어스의 키네틱 조각 사운드 설치 작품 '원자'도 인상 깊다.

전시장 한가운데를 소금 사막으로 메운 비앙카 봉디의 설치 작품 '길고 어두운 해엄'을 거니는 일은 요묘한 꿈속을 헤매는 것 같다. 사다리, 목걸이 장식 등 곳곳의 일상적 사물은 몽환적 배경과 어우러지며 초감각적인 경험을 유도한다.

양림문화센터에선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 중이다. 김형숙 작가는 고향인 나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도시화의 결과와 이로 인한 갈등을 보여주며, 김자이 작가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일궈낸 예술 프로젝트 '휴식의 기술 Ver. 도시농부(Re-member)'로 탄소 배출과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게 한다.

엮히고설킨 동시대 지구 생태계를 살펴보는 데서부터 시작해 조화를 이루며 중첩된 소리를 찾는 일, 분자 단위의 매우 세밀한 종들의 이야기까지. 모든 존재의 '소리'를 향유하는 이번 전시는 인간과 비인간 개체의 공존을 다루며 인류세 위기에 부딪친 지구 공간의 조직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커다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As a sound of the 21st century, PANSORI 관소리 24.9.7. ~ 24.12.1. 15th Gwangju Biennale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지난 6일 찾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는 마치 다양한 종들이 총집합한 우주 세계 같았다. 30개국 72명 예술가의 작품은 제작기 다른 형태와 특징을 갖췄지만 결국 이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

'관소리'를 하나의 은유이자 전시 방법론으로 삼은 만큼 곳곳에선 사운드와 공간을 이어낸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노엘 W. 앤더슨은 세 명의 벽면 테이프스트리 작품과 함께 사운드 설치를 선보인다. 여기에선 판소리를 기반으로 흑인

역동적이면서도 압도적인 규모가 돋보이는 작품은 제3전시실의 맥스 후퍼 슈나이더의 '용해의 들판'이다. 화려한 정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분수대에서는 검정에 가까운 진녹색 물이 뿜어져 나오고 타이어와 호스, 버려진 장화 등 폐기물이 자연 생태계와 어우러져 있어 다소 기묘한 느낌을 준다. 작가는 식물과 동물, 비인간이 번성하는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 모습을 통해 언젠가 '용해'돼 생태적 가치를 다시금 찾게 될 미래를 기대한다.

모든 존재와의 소통에 주목하는 3전시실 '겹침소리'에 이어 4, 5전시실은 '처음소리'를 바탕으로 꾸러졌다. 가장 태초의 소리, 아주 작은 존재에 주목하는 이번 섹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미시적인 것을 포착해 낸다.

벽면과 바닥을 따라 길을 낸 핑크빛 반짝이는 미미박의 설치작품 '발광하는 우리'는 무수한 잠재력을 품은 별자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소우주를 만드는 과정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본전시 외부전시장으로 활용되는 양림동에서는 '소리 숲'을 주제로 한 12명 작가의 다양한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빈 집이나 옛 경찰서 등을 전시장 삼아 양림동 골목 곳곳이 현대미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됐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선 키네틱과 소리적 요소가 합쳐진 줄리앙 아브라함 '또가'의 비디오 설치 작품을, 한부 철갤러리와 한희원 미술관에선 안젤라 블록의 드로잉머신 작업과 김영은의 비디오 작업 '오션보 이야기'를 각각 만나 볼 수 있다.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 설치된 천형산 작가 작품.



맥스 후퍼 슈나이더작 '용해의 들판'



마르케리트 위모작 '원자'



해리스 피어스작 '원자'



소금 사막으로 이뤄진 비앙카 봉디작 '길고 어두운 해엄'

## “열린 공간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 담아낸 전시 될 것”

광주비엔날레 국내외 기자초청설명회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는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죠. 생태계의 산실과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전시에 참여하는 72명 작가들 모두 이를 인식하고 있어요. 각각의 작품들이 공간을 탐색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6일 오전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진행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국내외 기자 초청 설명회에서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전시 주제와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관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하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관소리'를 은유로 동시대 공간과 소리를 탐색하는 전시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은 “현시대 ‘기후위기는 우리가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크게 바꿨다. 21세기 예술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분명히 인식하며, 예술가들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두의 공간을 의미하는 ‘관’과 ‘사운드’가 합쳐진 게 판소리다. 이는 곧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전시 주제는 지역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시가 갖는 특별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리오 감독은 “일반적으로 전시에선 소리가 중첩되는 것을 제한하려 하지만,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이를 완전히 깨뜨린다”며 “모든 소리가 합쳐지고, 한 사운드가 다른 작품의 사

운드와 연결된다. 관객 모두가 보고 들어야 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이미지와 소리는 진동에 기반을 둔다. 여러분의 신체가 이 모든 진동을 받아들이는 수신기라 생각해 보시라”며 “본전시 초입부터 특별한 도시의 소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같은 공간이지만 각자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열린 장소에서 발생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타자의 소리까지 담고 있다. 이는 창설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며 “창작적인 판소리가 시작적인 동시대 미술과 어떻게 연결되고, 동시대 공간이 어떻게 판소리로 표현될지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국내외 기자초청설명회에 참여한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왼쪽)과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이어 “또다른 본전시장으로 활용될 양림동 일대는 세계유산과 동시대 미술을 품은 대표적인 문화예술동네가 될 것이다”며 “이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마당 푸드랩’은 본전시와 상응하며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쳐겠습니다.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무안군

문의 : 062)650-2099